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2호 [루체 제25651호] 주제 106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 올려퍼진 다발적,련발적 로성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탄도탄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온 나라가 주체조선의 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탄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며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부대실전배비를 앞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또 한번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성을 진감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날에날마다 새로운 영웅서사를 펼쳐가고있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동계급은 얼마전 미래평양군사명부가 등지를 들고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를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신형



검토하여 부대들에 실전배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통행한 일군들과 함께 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더트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발사되였다.

발사된 탄도탄은 비상히 강화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 국력을 과시하며 5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승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이번 발사를 통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탄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줄기찬 연속공격전을 벌려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의 계열생산준비를 끝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부대실전배비를 위한 최종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 나오시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 유진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겸동지가 동행하였다.

이런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전반의 기술적지표들을 최종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맞이하였다. 이번 발사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무기체계전반의 기술적지표들을 최종확증하고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2 면 으 로 계 속

